

전북도립미술관 신소장품전 동시 개최

7년 만에 본관서 개최... 서울분관과 동시 전시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은 본관과 서울분관에서 동시에 신소장품전 '연구과제' 전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도립미술관에 따르면 7년간 수집한 소장품을 신소장품전 '연구과제'에서 공개한다. 이번 전시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장품 연구가 도립미술관의 중요한 과업임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관에서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수집된 484점 중 120여 점을 코로나 기점으로 3개의 시기로 분류해 소개된다. 첫 번째 섹션인 1·2전시실에서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코로나 이전에 수집된 86점 중 40여 점을 전시한다. 두 번째 섹션인 자료열람실과 3·4전시실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 시국에 수증된 329점 중 40여 점이다. 마지막 섹션인 5전시실에서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수증된 69점 중 40여 점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도립미술관 전체 소장품 현황과 소장품 추천위원회의 명단을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본관의 각 층 로비와 제 1전시실에서는 서예, 설치, 공예 등 넓은 시기와 다양한 연령대의

작품이 전시된다. 2전시실에서는 전북의 작고 원로 작가들의 작품뿐 아니라 매년 열렸던 아시아 미술전을 통해 동남아시아 주요 작가의 작품이 소개된다. 자료열람실에서는 2021년 기증받은 한운성의 초기 작품이 전시된다. 3전시실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장르 간 균형을 위해 집중적으로 구입한 사진들과 특별전을 통해 수증한 한지 작품들을 선보인다. 4전시실에서는 전북청년, 작가창작공간과 같은 전북의 청년작가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수증된 작품들과 군산아트페어, 아트전북페스타 등을 통해 구입된 작품들을 확인할 수 있다. 5전시실에서는 소장품 공모와 전북미술사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작품들을 전시한다.

이어 서울분관에서는 대아스페이스 기획전시와 전북미술사 연구진, 2023년 재개된 공모를 통해 수집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20여 점이 전시되고 있다.

한편 신소장품전 '연구과제'는 개막 이후 본관은 4월 13일까지, 서울관은 4월 27일까지 사전예약 없이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이애선 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도립미술



전북도립미술관 신소장품전 '연구과제' 포스터

관의 소장품 수집 방향을 공개해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미술관을 연구기관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임실군이 지난 20일 임실문화원에서 제21대 박정우 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제21대 박정우 임실문화원장 취임

"지방문화 역사적 가치 발굴·임실문화원 발전 공헌 최선"

임실군이 지난 20일 임실문화원에서 제21대 박정우 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심 민 군수, 장종민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내 기관·단체장 및 문화원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박정우 원장은 2023년부터 원장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임실문화원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꿈의 오케스트라 연주 공간 및 문화공간의 확보하고, 임실문화원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등 각종 문화 행사를 주관하여 지역문화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해 왔다.

올해에는 '꿈의 오케스트라'에 이어 '꿈의 무용단' 지역거점기관으로 선정되는 쾌

거를 이뤄 문화예술 교육사업 저변 확대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정우 문화원장은 "전임 원장님들의 뜻을 이어 지방문화의 역사적 가치 발굴과 문화원 가족,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임실문화원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심 민 군수는 "박정우 문화원장님과 함께 지역에 산재한 다양한 문화유산과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숨어있는 향토 문화를 연구해 임실의 보물로 가꾸어 가는데 모든 회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광한루OnePick크닉_봄! 다시봄'

남원시, 25일~4월 13일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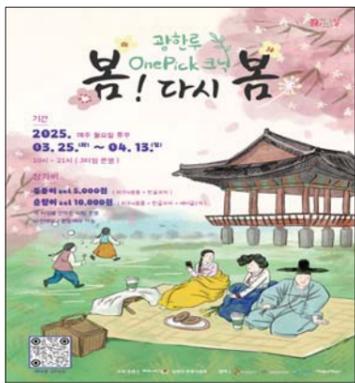
남원시는 오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18일간 광한루원에서 봄맞이 남원 맞춤 관광 프로그램인 '광한루OnePick크닉_봄! 다시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매주 월요일은 제외하고 하루 3회(오전 10시~오후 1시, 오후 2시~5시, 야간 오후 6시~9시) 운영되며, 각 회차별 50명씩 총 150명이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피크닉 세트(돛자리, 테이블, 조화, 담요 등)와 간식 세트를 제공받아 광한루원의 아름다운 봄 풍경 속에서 감성적인 피크닉을 즐길 수 있고, 특별한 한글 과자가 포함된 '몽퉁이 피크닉 세트'(5,000원)와 몽퉁이 피크닉 세트에서 베이클이 추가된 '춘향이 피크닉 세트'(10,000원)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행사 첫 주(3월 25일~30일)에는 한국관광공사 2025 여행기는 달 캠페인 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요천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함께 열린다.

또한, 광한루원 피크닉존 내에서는 비눗방울 놀이, LED야광봉, 한글과자를 활용한 이벤트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사전 예약은 전화 예약(25팀)과 현장 예약(25팀)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예약은 홍보자료에 기재된 구글폼 링크를 통해 신청하거나



전화 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현장 접수도 가능하나 사전 예약을 권장하며, 행사 종료 후 설문조사 및 광한루원 SNS 팔로우 이벤트 참여 시 추가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남원시 관광시설과 박준기 과장은 "이번 '광한루OnePick크닉_봄! 다시봄'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이 광한루원의 봄을 만끽하고, 남원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관광 패기지를 개발해 관광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문화재단, 시각예술 국내교류지원 참여작가 공모

전주문화재단은 지역 시각예술가의 타 지역 예술계 진출을 지원하는 시각예술 국내교류지원 사업의 참여작가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모는 청년 시각예술가 대상 △전주X부산 X성남 교류전 △전주X제주 교류전 등 두 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접수 기간은 4월 1~9일까지다. 신청서는 전주문화재단 누리집(<http://www.jfc.or.kr>)에서 내려받거나 전주문화재단 문예진흥팀(063-211-92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에 따르면 '전주X부산X성남 교류전'은 만 19세에서 만 44세까지의 전주 연구 청년 시각예술가를 대상으로 모두 3인을 선정한다. 선정 작가들에게는 작품 창작지원비 100만 원과 함께 부산과 성남 지역 예술가와의 교류 전시 및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어 '전주X제주 교류전'은 만 45세에서 만 65세까지의 중견 시각예술가를 대상으로 모두 6인을 선정한다. 선정 작가에게는 작품 창작지원비 150만 원과 함께 제주 '예술공간 이아'에서의 전시 개최와 제주 지역 예술가와의 교류 기회가 주어진다.

최라기 대표이사는 "해를 거듭될수록 지역 간 교류전시 참여작가 공모에 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 지역 작가들을 다른 지역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고창문화관광재단-상하농원, 업무협약 체결

고창문화관광재단(이사장 심덕섭)과 상하농원(대표이사 권태훈)이 지난 20일 치유문화 예술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상하농원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행사 연계 추진, 군민과 관광객의 치유문화예술 향유 증진, 양 기관 사업에 대한 상호 홍보 및 지원 등이 이뤄진다.

상하농원이 보유한 공간과 콘텐츠 등 다양한 기반을 중심으로 치유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상하농원의 공유사무실 거점 공간을 활용하여 고창을 찾는 '위케이션 사업' 참여자에게 고창에서의 특별한 치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민성환 상하농원 운영이사는 "상하농원이 가진 자연과 체험 콘텐츠를 활용하여 더욱 차별화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 "고창문화관광재단과 협력하여 고창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조창환 고창문화관광재단 상임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상하농원의 인프라와 고창의 치유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게 되어 기대감이 크다"며 "치유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관광트렌드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경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漢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43)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일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하고 있어 한국 투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